DOU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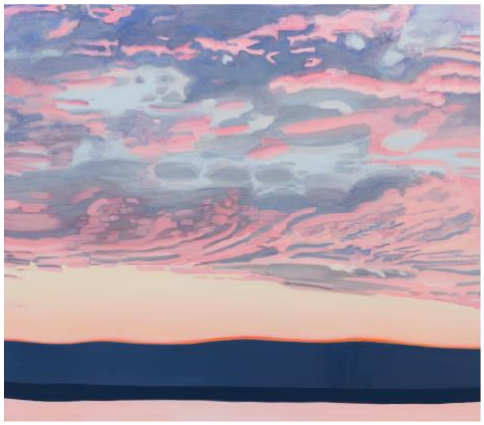
젊은 작가들의 흥미로운 2 인전이 열리고 있는 갤러리 세 곳

안동선 에디터 | 2022. 04

MZ 세대의 작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2 인전을 선보이고 있는 흥미로운 우연. 따로 또 같이, 두 작가의 작품 세계가 교차하고 중첩되는 풍경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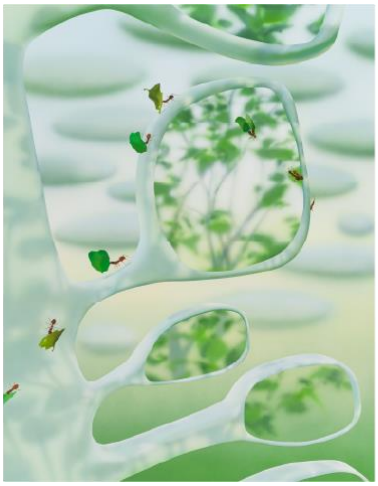
The Seasons

이머징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데 충실해온 디스위켄드룸에서는 회화작가 정이지, 조효리의 2 인전 《The Seasons》가 열리고 있다. 두 작가는 사뭇 다른 제작 방식으로 작업하지만 형상이 흐릿한 대상을 모양을 가진 도상으로 치환해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정이지가 시간의 단위와 방향성을 분절된 이미지들의 연쇄로 번안한다면, 조효리는 현실에서 마주쳤을 장면이나 사건을 회화의 가상적 차원으로 옮겨냅니다." 박지형 큐레이터의 설명이다.



정이지, 2022, oil on canvas, 200x230cm
정이지, 2022, oil on canvas, 97.8x104.4cm
정이지, 2022, oil on canvas, 130.3x80.3cm

푸른빛이 물러간 자리에 붉고 노란 얼룩이 천천히 뒤덮이는 수평선,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다 잠시 멍 때리는 친구의 얼굴, 화병에 담긴 보랏빛 꽃이 서서히 고개를 떨구는 시간 등 일상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들이 정이지의 그림 안에서는 멈추어 선다. 마치 별것 아니지만 자신에겐 유독 소중한 일상의 순간을 SNS 피드에 박제하듯이 말이다.



조효리, 2022, Arcylic, oil. color pencil, paper on canvas, 225x162cm
조효리, 2022, Arcylic, oil. color pencil, paper on canvas, 198.8x130.3cm
조효리, 2022, Arcylic, oil on canvas, 116.8x91cm

조효리는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상공간에서 풍경을 만들고 그 공간을 캔버스에 옮기는데 이때 캔버스의 물성을 실험하며 평면에서 입체로 차원을 증폭시킨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혼성적인 이미지 환경의 감각적 요소를 재해석한 듯하다.

이번 전시는 서로의 작업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두 작가가 중요한 문장을 전달하거나 회화작업의 기초가 될 이미지를 전하는 등 창조적 핑퐁을 통해 만들어졌다. 전시 제목 'The Seasons'는 어떤 의미를 담은 것일까? "두 작가가 다루어온 무형의 개념인 우정, 상실, 만남, 관계, 치유 등을 상징하는 대용물이자 관객을 주관적 서사로 이끄는 입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지었어요." 전시의 시작점에는 조효리 작가의 타원형 캔버스 작업이 걸려 있다. 파장이 일고 있는 물에 양각으로 너바나의 'Come As You Are'의 첫 구절 가사가 적혀 있다. 어떠한 편견도 없이 그저 보이는 대로 느끼길 바라는 작가의 주문이기도 할 것이다.

4월 24일까지.

안동선 에디터

[출처] 유니클로 U 매거진

(https://store-kr.uniqlo.com/display/displayShop.lecs?storeNo=83&siteNo=50706&displayNo=NQ1A06A15A18&utm_source=KakaoPlusFriends&utm_medium=KK_W_L2&utm_campaign=22SS_Magazine&utm_content=PC_Target&utm_term=220419)